

## 경제적 개념의 '풍요' 딜레마 벗기

김연수/소설가

1998년 IMF 관리체제가 시작됐을 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무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률의 사회에서 생활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몇 년 전의 사회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된 만큼 소득이 줄어야만 한다는 것인지 예측할 수 없었다.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소득이나 집값 등은 마이너스 성장률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 월급봉투, 집값 등과 성장률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험한 마이너스 성장률의 사회는 일시적이거나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무한 성장이라는 신화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세계화, 생태운동, 소박한 삶 등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건 마이너스 성장률 사회에서 살아남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사회를 마이너스 성장률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한 견인차는 IT산업이었다. 어쨌든 생산과 소비를 창출해내야만 했는데, 당시로서는 사이버공간과 북한이 개발을 주도할 미끼지로 떠올랐다. 북한의 경우는 결국 개발하는데 실패했지만, 사이버공간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IMF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이란 없다라고 주장할 수만은 없다.

이번에 녹색평론사에서 출간된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경험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책이다. 도발적인 제목 자체에 이 책의 주장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안되더라도 우리는 풍요로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경험한 우리에게 이는 다소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IMF 관리체제 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풍요롭지

못했으니까.

리미스가 이런 제목을 붙인 까닭은 국가에서 말하는 '풍요'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풍요'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리미스는 '풍요'를 경제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반대한다. 그에 따르면 '가난함'이나 '부유함'은 정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미스는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을 정치적인 것으로 보고 사회운동을 벌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에 반대해 자발적인 가난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주장과는 입지가 다른 셈이다.

이 책에서 리미스는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을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타이타닉호에 비유한다. 타이타닉 현실주의에 따르면 빙산에 부딪히므로 타이타닉호를 멈춰야만 한다는 주장은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나 엔진에 연료를 주입하는 선원에게는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다. 배를 멈추라는 말은 말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요리사나 선원들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미스는 새로운 상식, 새로운 현실주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군대 문제, 민주주의 문제 등도 거론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항발전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삶에서 경제라는 요소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제안이다. 그 빈자리는 시장 이외의 모든 즐거움, 행동, 문화가 채워줄 것이다. 이는 풍요의 개념을 경제에서 찾지 말고 인간의 고급한 정신 활동에서 찾자는 말이기도 하다.



▲ 고흐의 '정오의 휴식'



• 필자 소개 •

필자 김연수씨는 성균관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소설가와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소설집으로 <가면을 가리며>, <스무살> 등이 있으며, 2001년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